

우리도 떠드는 도서관 만들자

전 세계 인구 중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역대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2%, 하버드대 입학생의 27%, 아이비리그대학 교수의 30%, 세계 100대 기업 창업주의 40%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유대인 고유의 교육방법인 '하브루타'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떠드는 도서관 '예시바'

유대인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는 장소가 있다. 바로 일종의 도서관인 '예시바'인데 기존 도서관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 큰 소리로 떠들며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조용히 책을 읽고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도서관과 달리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떠들썩하다. 시끌벅적하게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고 반박하는 풍광 같은 릴레이가 진행된다.

처음 보는 사이에서도 대화를 주고받는다. 나이도 계급도 성별도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토론 주제에 관심이 있거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한다.

예시바의 구조는 옆에 앉은 사람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부분 좌석이 둘 이상이 마주 보고 앉도록 놓여있다.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혼이 나는 교실이 아니라 '떠들어야 공부다'라고 하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예시바에서 논쟁을 하며 격렬하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한다. 하브루타는 나이나 성별 계급과 관계없이 짝을 지어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베르'에서 나온 말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식으로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된다. 유대인들에게 하브루타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다. 유대인들은 혼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대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나라와 땅을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소위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은 혼자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던 유대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답을 예측할 수 없는 질문과 거침없는 대답으로 대화의 문화를 만들었다. 기존 교실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에 대

해 질문하고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통찰력을 갖는다.

하브루타의 교육적 효과

1. 고도의 사고 능력 함양

질문과 토론, 논쟁만큼 뇌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없다. 토론과 논쟁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반박할 말과 논리를 치열하게 생각해야만 하므로 고도의 사고 능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다. 하브루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과 사물에 대해 치열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2. 창의적 사고력 증진

하브루타는 태생적으로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탈무드는 랍비와 현자들의 토론과 논쟁 형식의 글로, 그런 대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뒤집어 생각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견해나 관점,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한다. 상대방과 다른 나만의 견해를 가져야 토론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이란 다르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이며, 하브루타가 바로 그 창의성을 가장 잘 계발할 방법이다.

3.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이 내재적인 동기를 갖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미리 토론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수업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부모에게 물어가며 토론을 준비하기에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칠 필요가 없다.

4. 완벽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그 아이디어는 실현되기 어렵고 결국 쓸모가 없게 된다. 하브루타는 그 자체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설득력을 길러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5. 실천적 지식의 내재화

전통적 하브루타에서는 토라와 탈무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펼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를 고민한다.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실천할 지 방법을 생각하고, 정리된 생각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긴다.

토론 교육의 필요성

토론 교육을 통해서 첫째,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둘째, 논리적 사고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교육에서의 토론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한, 수험만을 위한 공부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각화된 평가 방식이 도입되려면 토론식 수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정보 수용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하는 토론식 수업을 교육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의 운영 및 수업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면 우리나라도 토론식 교육의 성공적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 유대 교육이 가진 핵심이다.

스웨덴, '디지털 기기' 벗어나 종이책·손글씨 회귀

스웨덴의 학교들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종이책과 손글씨로 대표되는 전통 교육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문해력 등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2016~2021년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저하 추세를 보였고, 전문가들은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에 지나치게 치중

하면 득보다는 더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자국 교육 디지털화에 대한 성명에서 "디지털 도구가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보다 오히려 저해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료 디지털 소스에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인쇄된 교과서와 교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뒀어야 한다는 게 연구소 측 주장이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디오게네스를 아십니까?

그는 개집 같은 통에 거하면서 어느 날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 들고 무엇 그리 열심히 찾으시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찾소.”

사람으로 들끓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을 찾아 헤맸다는 이 철인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좋아합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교인이 많으면 좋아하고, 성도들은 돈이 많으면 좋고, 학생들은 점수가 높으면 좋아합니다. 물론 의미가 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99%의 헌신자 99명보다 100%의 헌신자 1명이 더 낫다.” 산수로 계산하면 맞는 말이 아니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맞는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은 역사의 통로요, 엄청난 나비효과와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애굽과 세계가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고,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이 회복되었고,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듯,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의 온 집안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슬픔 속에 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시대적 일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저 한 사람의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성령으로 변화 받고 3000명을 회개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은 믿음으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다섯 번의 결혼에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최초의 사마리아 지역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경직 손양원 목사, 유관순 열사는 1902년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세 분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한 사람은 거룩한 나비효과와 시발점이고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쪼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놀랍게도 그 거룩한 도성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용서받았을 텐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부의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 앞에 우리는 한번 두려움을 안고 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길은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514년경,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한창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에딘버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하딩톤에서 출생하여, 피의 여왕이라 불린 메리가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처형하며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을 때 거룩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 메리와 투쟁하며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오롯이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자 칼뱅과 함께 제네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려다 그의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듣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로마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대로 여왕은 중병에 들었고, 결국 그를 옥에서 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 가십니다. 그것은 전능자를 흔들 기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풀러,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1865년부터 1895년 사이 30년 동안 2,566명의 고아가 신자가 되어 고아원을 떠났고, 70세 고령으로 세계 42개국을 다니며 8천 회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워 죽을 때까지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으며, 기도료만 7천 5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의 금액이니까 현재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함께 하는 사역을 통해서 300만 권 이상의 성경책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풀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대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위로부터 받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게 하는 것은 웅변술도 아니며 깊은 지식도 아니다. 단지 기도와 말씀의 묵상 생활만이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영웅은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엘리아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무력화시키고, 바알은 거짓 신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전하 만민 앞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약 5:16-18).”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굳이 강조합니다. 그런 그가 한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면 비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길을 가느냐가 그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적어도 엘리아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존 낙스가 간 길, 리즈히워즈가 간 길.

바로 아주 평범한 당신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한반도 통일, 설마 미국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강대국과 상관관계의 외적 변수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적 변수를 가지며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변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대 적극적이지도 않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시소계임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힘을 견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함으로써, 이 두 나라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분은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이다. 만약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진다.

또한 한국이 최대의 군수산업 시장으로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7조6천억 원의 비용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지출하였다. 미국에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객이다. 그러기에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한국은 더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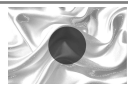


중국의 변수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미국에 영향을 받는 통일 자유대한민국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직접 국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로 인식한다. 둘째는 중국은 북한에 위치한 광물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

청난 자원을 싼값에 가져가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은 그동안 독식했던 북한의 자원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다. 셋째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방영토(간도)에 대한 주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자연스레 붕괴가 된다면 북한 토지는 휴전협정 당사자 국가로서 중국이 자동 진출권으로 가지고 북한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도 동북공정을 통하여 명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본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역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일본의 변수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항상 북한 정세의 문제로 정권을 잡고 유지해 왔다. 일본 우익들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일본은 헌법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이다. 이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군대를 가질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존재가 바로 북한이다. 또한 일본은 통일 한국을 바라지 않는다. 강대국 통일한국은 일본을 압도할 것이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통일 한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독도문제부터 시작하여 대마도 문제까지 복잡한 영토 분쟁이 커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통일 한국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지금은 한반도가 휴전 상태로 도시의 기능

이 서울보다는 동경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 싱가포르와 상해에 많이 점유 당했지만, 세계 각국의 지사 설립 등은 아직 동경을 중심으로 경제 패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되면 경제적 허브 측면에서 한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 통일 한국이 되면 일본의 경제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 각국의 주요 정책의 퍼즐을 맞추어 보면 쉽게 보이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변수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가장 변수가 적은 국가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시 이해득실 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유일한 국가이다. 통일 한국이 되면 압록강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아 군사 정책에 힘의 분산을 가져올 수 있어 러시아는 좋은 환경이 된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와 직접 연결이 되는 가스관으로부터 철도를 활용한 유통의 라인이 형성되어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시베리아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으므로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혈맹관계에서 일반 국가 간의 관계로 조정된 지 오래기 때문에 중국처럼 북한을 크게 의식할 필요도 없다.

북한에도 개천절과 한글날 있나?

북한의 명절은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 명절로 구분된다. 즉 사회주의 명절은 국가나 사회의 의미 있는 날을 경축하는 기념일이고, 민속 명절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최고의 명절은 최고 지도자의 생일이다. 김일성·김정일의 생일 축하행사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되며 북한 전역이 들쭉날쭉 정도로 거창하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이 들어있는 2월부터 김일성의 생일이 들어있는 4월까지를 '민족 최대의 명절' 축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예술 공연, 체육행사,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축하행사를 벌인다.

북한에서는 '한글' 대신 '조선글'이라고 하며, 1월15일 훈민정음 창제일로 기념한다. 북한은 훈민정음 '창제'를 기리는 데 반해, 우리는 '반포'를 기념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단군을 신화 속 인물로 평가하다가 1993년부터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릉을 발굴하면서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 여긴다. 같은 민족인 만큼 남한과 북한은 개천절을 함께 기리고자 2002년, 2003년, 2005년, 2014년에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로 기리기도 했다.

■ 남북한의 국경일 비교

북한			남한		
이름	사회주의 명절	민속 명절	이름	국경일	공휴일
설날		1월1일	신정		1월1일
음력 설날		1월1일(음)	설날		1월1일(음)
조선인민군 창건일	2월8일				
정월대보름		2월15일	3·1절	3월1일	
김정일 출생일(광명성절)	2월16일				
국제부녀절	3월8일		석가탄신일		4월8일(음)
청명절		4월5일			
김일성 출생일(태양절)	4월15일		어린이날		5월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4월25일				
국제노동자절	5월1일		현충일		6월6일
조선소년단 창립절	6월6일		제헌절	7월17일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7월27일		광복절	8월15일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8월15일				
추석		8월15일(음)	추석		8월15일(음)
김정일선군혁명영도개시일	8월25일				
정권창건일	9월9일		개천절	10월3일	
노동당창건일	10월10일		한글날	10월9일	
헌법절	12월27일		성탄절		12월25일

글로벌 한민족은 누구일까?

세계 각국의 민족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유전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다.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합민족이라는 한국인과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민족들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일본의 야요이족



일본 야요이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건 이들이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일본인이라는 주장이다. 현대 일본인은 기존 일본 열도의토착민인 조문족과 이주해온 야요이족의 유전자를 35:65의 비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야요이족은 일본인의 구성에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한반도에서 이주해왔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유물들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하며, 한반도의 주구묘와 지석묘 등이 마찬가지로 야요이족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략 2000년 전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큐슈로 이주해 오늘날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만주족

동아시아의 퉁구스계 민족인 만주족은 인구수로만 본다면 중국에서 4번째로 많다. 중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등 인접국을 포함한다면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이며, 중국 내에서는 랴오닝성과 허베이성에 많은 만주족이 거주하고 있다. 만주족이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연구결과

는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제기되었다. 만주족은 부자유전과 모계유전 모두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집단 간 분류학적 거리로도 펜로즈 크로스만법으로 계산했을 때 0.021로 한국인과 가장 가깝다.

중국의 나시족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받은 나시족은 인구가 3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쓰촨성과 윈난성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모계 사회문화를 지니고 있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나시족의 최연장 여성은 한 집안의 중심이 되는데, 이러한 최연장 여성이 거주하는 곳에는 집안의 미성년 자녀들이 모두 모여 거주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태국의 라후족

태국 북부지역 치앙라이 근처 산속의 밀림지대에는 여러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고산족이라 부른다. 그중에 라후족이 있다. 라후족은 그들의 조상이 흰 눈이 오는 나라였고 전쟁에 져서 중국에 포로로 끌려와 청해성 농우에서 살았다고 스스로 말



한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로 끌려온 고구려인으로 보는 이유다. 또 이들의 DNA를 검사한 결과 이들은 인류학적으로 한국인의 세계적인 특징은 유전자 백혈구 항원 HLA-B-29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많고 풍속으로는 고구려 시대의 형수취수제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시조는 우리의 단군에 해당하는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인도의 아오족

인구 25만의 아오족은 나갈랜드와 아삼 지방 등에 사는 인도의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인종적으로 몽골로이드계로, 작은 눈과 푹 튀어나온 광대뼈 등이 한국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인류학계에서 아오족은 참수(斬首) 풍습과 5월의 계절제 등으로 유명하다. 아오족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이며, 이들이 쓰는 몽센아오어(語)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다. 호전성이 강한 아오족은 전통적으로 부계 중심 문화가 강해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한국 문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8억 인구 중 한류 소비층인 15~34세 청년 인구가 35%에 달한다. 이 때문에 내년 초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당들이 K팝 걸그룹 블랙핑크를 활용해 표심에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문체부 조사기준으로 세계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96%)이 가장 많은 '친한과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의 한류 문화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더욱 강화됐는데 그간 TV나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던 드라마 중심의 한류가 한국 음식으로 파급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중화된 대표적인 한국 음식은 라면과 김치, 떡볶이 등이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라면 소비량이 많은 나라로 2020년에 126억4000만 개를 기록했다.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볶음라면이나 비빔면이 국물 라면보다 선호된다. 봉지라면은 가정에서, 컵라면은 여행 중이나 집 밖에서 주로 먹는다. 차이점은 인도네시아 컵라면에는 1회용 포크가 들어 있

다는 점이다. 손으로 식사하는 습관 때문에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라면 조리법은 매우 독특하다. 한국에서는 물부터 끓인 뒤 면과 스프 등 모든 재료를 넣어 조리하거나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끓인 물에 익힌 면을 그릇에 옮긴 후 뜨거운 면 위에 스프를 뿌려 비벼 먹는다. 또는 빈 그릇에 스프를 먼저 붓고 그 위에 삶은 면을 얹어 비벼 먹기도 한다.

해외여행객 1위 싱가포르

다민족·도시국가 형태의 싱가포르는 외국 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K-Pop, K-Drama, K-Movie에 이르기까지 한류 전반에 걸쳐 높은 관심을 표출한다. 거의 매달 한국 연예인들의 K-Pop 공연 팬미팅 등이 개최되고 있고, 이 외에도 K-Beauty, K-Fashion, K-Travel 등 다양한 분야로 한류가 확산하는 추세다. 코로나 시기 트래블버블이 싱가포르와 맺어지면서 가장 먼저 하늘길이 열렸다. 싱가포르인의 평균 체류 기간은 10.8일로 비교적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지출금액이 3226달러(한화 약 433만 원), 하루 평균은 356달러(한화 약 48만 원)였다.

이들의 한국 재방문율은 무려 78.4%, 평균 방한 횟수가 4.2회였고, 코로나19 시기에도 한국여행의 전반적 만족도는 96.7%였다.

아르헨티나, 한국 문화 관심 증가

아르헨티나는 다른 남미 지역에 비해 한류의 영향이 적은 지역 중 하나였으나 양질의 한류 콘텐츠 생산에 이어 넷플릭스 등을 통한 K-Movie 및 K-Drama 전파 확대, 이에 따른 K-Food와 K-Beauty 등이 현지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 문화가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이며 길거리 등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현지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인타운 소재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한식당들도 현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신규 매장을 열고 있다. 스페인어로 된 한국 식품 홍보 자료, 섭취 방법 및 활용 방법 등이 공유되며 현지인들의 한국 식품점 방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매니아 팬들의 경우 한국 식품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식재료를 구매한다. K-Pop 팬들이 가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 먹는 것처럼 각자 관심 있는 콘텐츠를 통해 본 음식, 습관들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이를 즐기고 있다.



대비하라, 중국의 붕괴를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진한 경제지표를 잇따라 발표하고, 부동산발 부채위기까지 증폭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파장이 크다. 중국의 경제구조는 오랫동안 저부가가치 생산, 인프라 투자 구축과 확대를 위한 정부 지출,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크게 의존했다.

1994년과 2006년의 세제 개편은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타 지역과 경쟁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과도한 토지사용권 매각으로 세수의 부족분을 메꾸면서 부동산 경기와 고정자산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로 구성된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2%를 차지하며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주도한 것은 지방정부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부동산 산업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지방 소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1선 도시에서도 공실률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 채권이 증가했으며, 중국 기업 횡다가 미국 법원에 미국내 자산에 대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으로 이어졌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园,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远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황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부침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해 중국은 GDP(국내총생산)의 30%가 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구실을 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낳았고,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2020년부터 비틀거리기 시작

했다. 2020년 8월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기업에게 세 가지 레드 라인(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70% 이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 100% 이하, 단기채무를 상회하는 현금 보유)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부문의 이른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조치는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恒大, 万达, 비구이위안) 모두 디폴트 위기를 초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에 토지를 대여해 주고 세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 왔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은행 융자를 받지 못하자 민간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 부진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문제가 터져 나왔다.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2021년 말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업체인恒大그룹이 파산하며 시작된 도미노 파산 위기가 최근에는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큰돈을 투자했던 중국 최대의 민간 신탁회사인 중룽신탁이 투자상품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와 청년 실업률 증가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3% 하락하는 등 소매판매, 산업생산이 모두 둔화했다. 올해 1~7월 고정자산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해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중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8.5%나 감소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중국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중국의 7월 수출입도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수출은 9.2% 하락해 수입 하락폭(6.9%)보다 컸다. 지난 6월에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가 하락했다. 수출 감소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이뤄 온 원동력이 소진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생산재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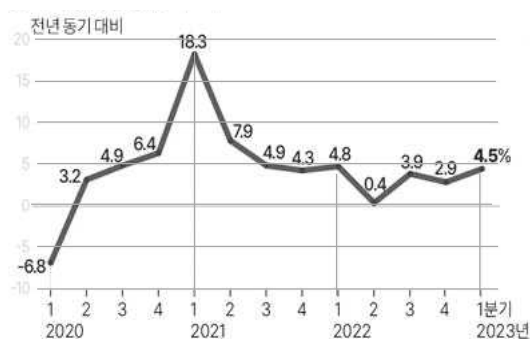
기 때문에 심각한 세계 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은 고사하고 5~6%대의 중속 성장조차 힘들 전망이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로 3%에 그쳤다. JP모건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4.2%로 전망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 미만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수 있음을 보도했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자 공식 통계로도 청년(16~24세) 실업률이 21.3%에 이르렀다. 올해를 신규 대졸자가 1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청년들의 상실감이 커지면서 연애·결혼·취업·주택을 포기하는 4포 현상과 함께 청년 스스로 청나라 말기 고학력 실업자인 '쿵이치'에 비유하는 자학적 유행어가 대두되었다. 과거 본인의 사례를 들어 청년들도 고생이 필요하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 반발이 확산하면서 정치 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발 위기, 한국의 영향은

중국 경제의 불안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을 둔화시키고 직접 투자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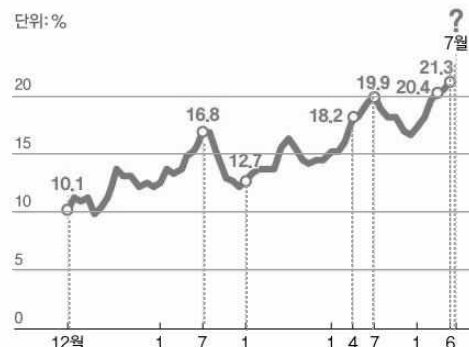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은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0.6%p 정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산업별로는 항공·전기 및 전자기기·화학·기계 등의 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중국의 구조조정이 투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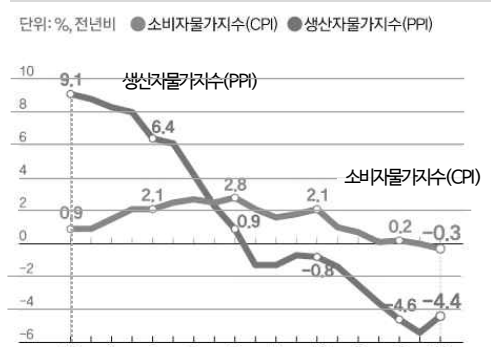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중국 청년(16~24) 실업률 추이



자료:중국국가통계국

'디플레이션' 기로에 선 중국 물가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인베스팅닷컴

유니콘을 키워야 국가 경제 산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유니콘 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유니콘 기업은 혁신창업의 성공사례이자 국가의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보유국

스타트업 기업 중 상장하기 전의 기업의 가치를 1조 원(10억 달러) 이상으로 인정을 받으면 ‘유니콘 기업’으로 불린다. 유니콘 기업이란 단어는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억 달러(1조 원)를 넘는 일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벤처투자자인 에일린 리가 2013년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상장도 하기 전에 이미 기업의 가치를 인정 받은 기업은 투자하는 사람들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 보유국 Top 10에는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브라질, 싱가포르 등이 속해 있다.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은 510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유니콘 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인터넷 SW/서비스 분야 기업이 135개로 유니콘 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핀테크 분야 106개 기업, 헬스 분야 48개 기업, 인공지능 분야 40개 기업, 사이버보안 분야 31개 기업, 데이터 관리/분석 분야 기업이 30개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위를 차지한 중국은 이커머스/D2C 분야 30개 기업, 인공지능 분야 18개 기업, 자동차/운송 분야 17개 기업, 하드웨어 분야 17개 기업 등 총 167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인도의 경우 자동차/운송, 데이터 관리/분석, 이커머스/D2C, 에듀테크, 헬스, 인터넷 SW/서비스, 모바일/텔레콤, 공급망/물류/배송, 여행 등의 분야 유니콘 기업을 총 59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자동차/운송 부분에서 ‘쏘카’, 컨슈머/리테일 부분에서 ‘엘앤피코스메틱’, 이커머스/D2C 부분에서 ‘위메프’와 ‘무신사’, 핀테크 부분에서 ‘토스’와 ‘두나무’, 헬스 부분에서 ‘에이프로젠’, 모바일/텔레콤 부분에서 ‘엘로모바일’, 공급망/물류/배송 부분에서 ‘컬리’, 여행 부분에서 ‘아놀자’, 기타 부분에서 ‘지피클럽’이 이름을 올리며 총 11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창업지수’ 3위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 기관 ‘스타트업 블링크’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리포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해 기준 ‘창업 인프라와 생태계가 잘 구성된 나라’ 순위에서 3년 연속 3위를 차지했다. 부동의 1위는 압도적인 점수의 미국(195점)이고 2위 영국(52점), 4위 캐나다(35점) 등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경제 규모·인구·영토와 자원 등 모든 면에서 밀리지만 유니콘 수(기업 가치 1조 원 이

상 스타트업)와 상장 스타트업, 대표 기업 수 등을 종합해 45점을 얻었다.

이스라엘에는 현재 7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수만 해도 100여 개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분야별 투자 유치 순위는 매년 달라지지만 대체로 투자를 많이 받는 분야는 사이버 보안, 헬스케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핀테크, 이커머스 등이다. 이스라엘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규모의 대기업은 없지만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하면서 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해 세계가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상품도 한둘이 아니다. USB 플래시 메모리, IBM PC에 사용된 인텔 8088 마이크로프로세서, 레이저 키보드, 바이러스와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인터페론 단백질, 전자사전 및 통역도구인 바빌론 등도 이스라엘의 발명품이다.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사이버 보안·바이오·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구글이 글로벌 검색 시장의 패권을 잡을 수 있게 한 구글 서제스트, 파산 직전에 놓인 인텔의 극적 회생을 견인한 센트리노 칩이 모두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개발됐다. 이들 성공 사례로 인해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망한 다국적 기업들은 안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앞다투어 R&D센터를 구축하게 만들었다.

세계 유니콘 기업 183% 성장할 때 한국은 12%

세계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2019년 말 1조3546억 달러(약 1735조 원)에서 올해 5월 3조8451억 달러(약 4925조 원)로 18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290억 달러(37조1천억 원)에서 325억 달러(41조6천억 원)로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 유니콘이 전체 유니콘 기업 가운데 차지하는 가치 비중이 2019년 2.1%에서 올해 0.8%로 1.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가 2.7배(449개→1,209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4배(10개→14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 한국 유니콘 기업 수 추이 (단위: 개)

	2019	2020	2021	2022	2023
유니콘 수	10	11	10	12	14
비율	2.2%	2.2%	1.3%	1.1%	1.2%

■ 연도별 한국 유니콘 기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쿠방 크래프트 엘로모바일 위메이크프라이스 비버리퍼블리카 (토스) 무신사 L&P 코스메틱 GP클럽 에이프로젠 아놀자	쿠방 크래프트 엘로모바일 위메이크프라이스 토스 무신사 L&P 코스메틱 GP클럽 에이프로젠 아놀자 소카	토스 크래프트 엘로모바일 위메이크프라이스 무신사 L&P 코스메틱 GP클럽 에이프로젠 아놀자 소카	토스 엘로모바일 컬리 위메이크프라이스 무신사 리디 L&P 코스메틱 GP클럽 에이프로젠 아놀자 소카 두나무	토스 엘로모바일 컬리 트러지 위메이크프라이스 무신사 각방 메가존 버킷플레이스 리디 L&P 코스메틱 GP클럽 에이프로젠 아놀자 IGA웍스

※ 쿠방(21년 상장), 크래프트(21년 상장), 소카(22년 상장), 에이프로젠(22년 우회상장)

■ 2022년 국가별 유니콘 기업 보유순위

순위	국가	기업 수
1위	미국	510개
2위	중국	167개
3위	인도	59개
4위	영국	39개
5위	독일	25개
6위	프랑스	24개
	이스라엘	24개
8위	캐나다	17개
9위	브라질	15개
10위	싱가포르	12개
11위	한국	11개
12위	홍콩	7개
	멕시코	6개
13위	스웨덴	6개
	일본	6개
	합계	928개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유니콘 클럽 상위 15개국’

■ 2022년 글로벌 10대 유니콘 기업

순위	변동	기업명	기업가치 (억위안)	가치변동 (억위안)	국가	본사	업종
1	-	도우인	1조3400	1조 ▼	중국	베이징	SNS
2	1	스페이스X	8400	1680 ▲	미국	LA	우주항공
3	-1	앤티그룹	8000	2010 ▼	중국	항저우	핀테크
4	-	스트라이프	4100	2230 ▼	미국	샌프란시스코	핀테크
5	11	세인(Shein)	4000	2680 ▲	중국	광저우	전자상거래
6	15	바이낸스	3000	2010 ▲	몰타	몰타	가상화폐
7	1	데이터브릭스	2500	-	미국	샌프란시스코	빅데이터
8	3	웨이쑤은행	2200	200 ▲	중국	선전	핀테크
9	2	징둥과기	2000	-	중국	베이징	핀테크
10	11	척아웃닷컴	1900	870 ▲	영국	런던	핀테크

자료:후론연구원

■ 유니콘 TOP5 업종 우리나라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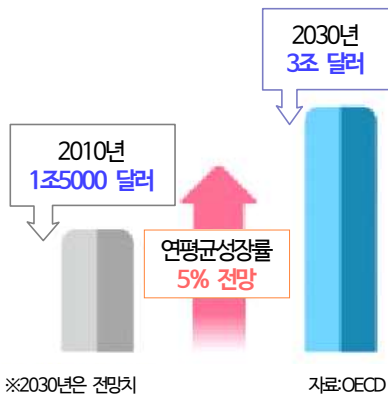
1위	핀테크 → 0.7%(공동 16위)
2위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 → 無
3위	전자상거래 → 2.4%(공동 6위)
4위	AI → 無
5위	헬스 → 1.8%(공동 4위)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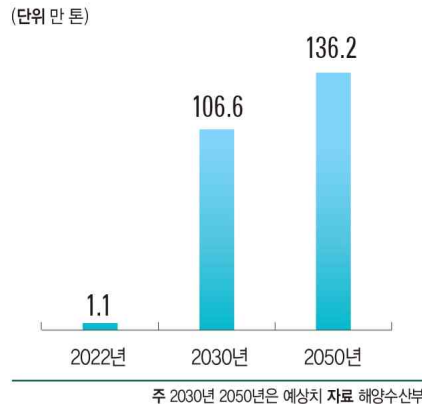
블루이코노미, 지구경제 변화시킨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려는 방안으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제사회체제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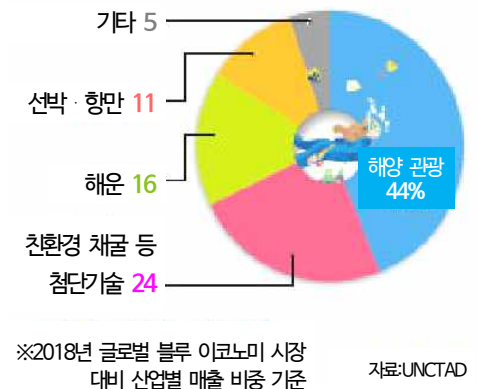
전망 밝은 글로벌 블루이코노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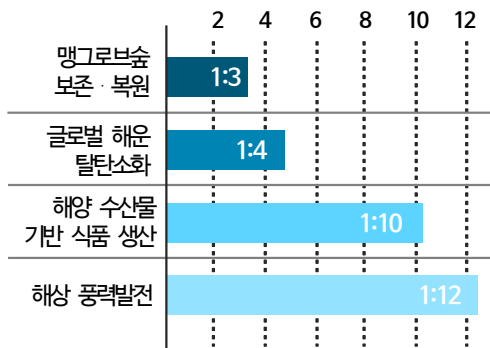
급증하는 해양 생태계 탄소흡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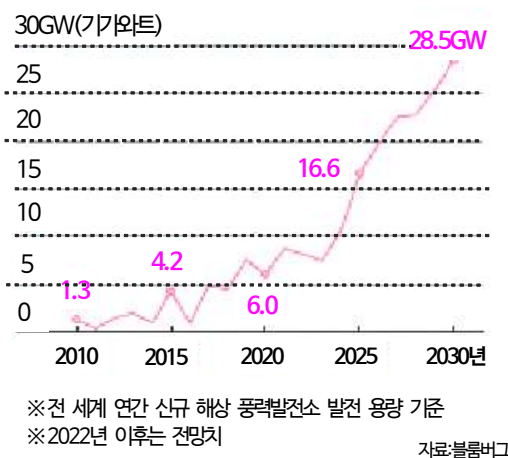
해양 관광이 주도하는 블루 이코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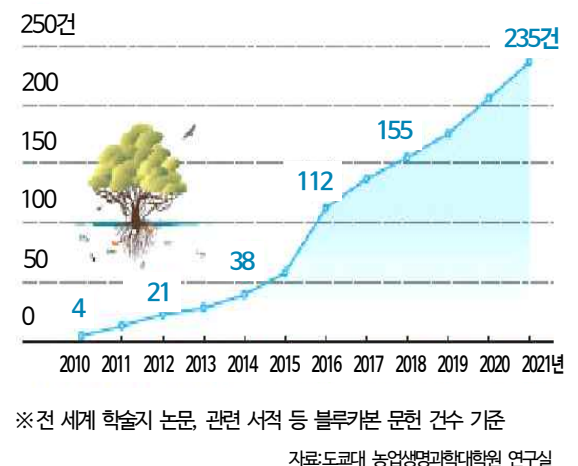
높은 투자 수익 가늠되는 블루이코노미



빠르게 증가하는 해상 풍력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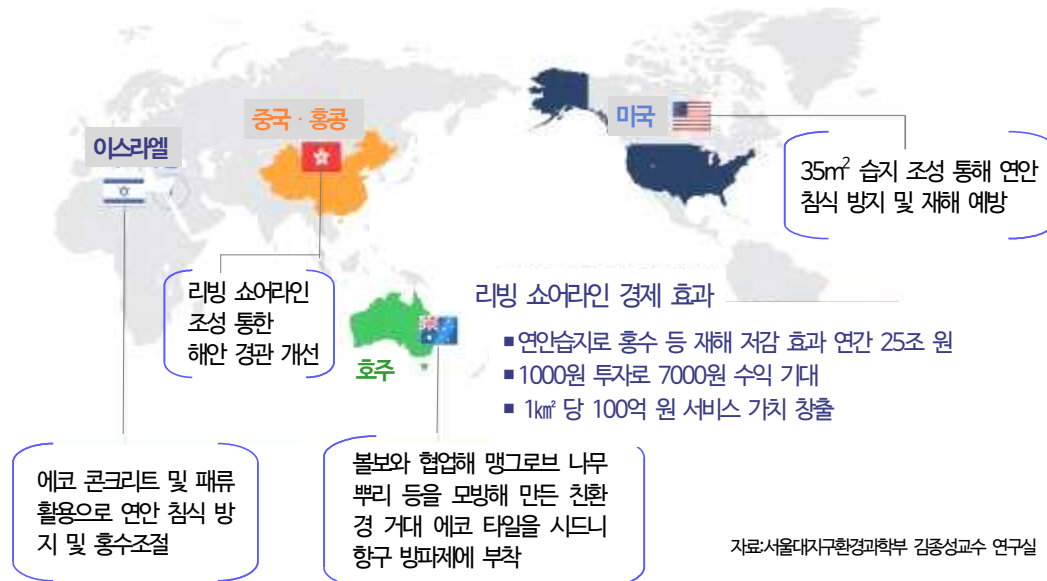


꾸준히 증가하는 블루카본 연구



글로벌 유행 물살 탄 '리빙 쇼어라인'

리빙 쇼어라인 인공제방과 같은 일명 '회색구조물'은 철거하고, 해안가에 식생이나 굴밭과 같은 자연서식지를 대폭 늘림으로써 허리케인에 대비하고 연안 침식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탄생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블루 이코노미

- 1991 덴마크 해상 풍력발전 구역 최초 조성
- 2010 유엔기후변화 협약 '블루카본' 최초 언급
- 2012 유엔 블루이코노미 용어 최초 사용
영국 이코노미스트 '세계 해양 서밋' 첫 개최
- 2018 세계은행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PROBLUE' 펀드 신규 발행
- 2019 호주 세계 최초 해상연구 플랫폼 건설 추진
EU 블루 이코노미 스타트업 지원 위한 'BlueInvest' 펀드 첫 발행
- 2021 미국 '블루 이코노미' 전략 발표
- 2023 한국수출입은행 국내 최초 해양재생에너지 등 해양 친화적 사업 대상 특수 목적 채권 '블루 본드' 발행

지구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생명체의 존재는 많은 자연 현상들의 우연이 아닌, 정확한 배열들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하는 특성 중 일부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기 중의 기체 구성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생물들이 숨을 쉬도록 해 주고, 식물이 말 그대로 '허공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는 치명적인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오존층도 마찬가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이로움 중 하나는 지구의 방사선 방패인 자기권이다. 지구의 생명 유지 속성은 의도적인 설계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자기권은 행성이나 별과 같은 천체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으로, 하전 입자들은 해당 천체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계에는 여러 행성이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지구는 모든 암석 행성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견고한 자기권을 갖고 있다. 지구의 자기권은 지구의 생명체 유지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계된 장벽

공상과학 소설의 '힘의 장(역장)'과 유사하게, 자기권은 지구를 지속적으로 강타하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주는 강력한 장벽이 된다. 우주방사선은 다양한 에너지로 하전된 입자들로(전자와 전자가 제거된 다양한 원소의 핵 등) 구성되며,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태양에서

흔히 태양풍이라고도 불리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이 강한 하전 입자들의 연속적인 흐름이 우주방사선의 대부분 차지한다. 주로 전자, 양성자(수소 원자핵), 알파 입자(헬륨 원자핵)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이 매 초 방출하는 입자의 총 질량은 약 150만 톤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은하에서

은하에서 오는 우주방사선 대부분은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일부 별이 '죽는' 대규모 폭발)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전 글에서 '우주방사선'이라는 용어는 종종 이것을 지칭한다. 우주방사선에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양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에너지 우주선은 대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이차 입자들도 함께 방출된다.

이 우주방사선이 지구 표면을 강타한다면, 모든 생명체에 극도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자기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주방사선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는 지구 자기장이 그것을 통과하는 하전 입자들에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풍의 지속적인 폭격은 지구 자기장의 태양을 향한 쪽을 '압축'한다. 태양을 향한 쪽, 즉 낮 쪽은 지구 반경의 약 6~10배에 달한다. 태양을 향한 자기권의 반대쪽, 즉 밤 쪽은 거대한 자기 꼬리로 뻗어 있으며, 이 자기 꼬리의 길이는 변동되는데, 달 궤도 거리인 지구 반경 60배를 지나, 지구 반경의 수백 배 길이로 측정될 수 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

이 보호막이 없다면, 지구는 이러한 손상을 주는 유해한 광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사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주탐사 기관이 완화하고자 하고 있는 우주비행사의 직업적 건강 위험이다. 우주선과 태양풍이 보호막이 없는 인체에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영향은 심혈관계이다. 즉 심장과 혈관이 손상되어 동맥이 경화되고 좁아지는 등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면, 세포 내 DNA가 손상되어 암이 유발되고, 뇌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인 신경발생이 크게 방해받을 수 있다.

우주탐사 기관도 우주방사선이 남성과 여성 우주비행사의 생식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해한 영향에는 다음 세대에 유전적 손상(돌연변이)이 전달될 위험 증가가 포함될 수 있다.

자기권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 기능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의 외피인 대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태양풍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를 쉽게 찢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체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자기권에 의해 생성된 강력한 차폐 효과는 이러한 대기 기체들을 감싸고 유해한 붕괴로부터 보호한다.

흥미롭게도 태양풍 자체가 생명체를 보호하는 또 다른 힘의 장을 제공한다. 2019년에 보이저 2호 탐사선은 태양풍이 매우 강렬한 성간방사선에 대한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태양풍은 태양권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거품을 생성하는데, 이 거품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몇 배나 먼 270억 km까지 뻗어 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권계면이라고 불리는 경계를 지나면서, 방사선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도적인 설계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창세기 3장), 설계의 증거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을 압도한다. 우리의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우연한 진화적 원인과 다르게, 지적 설계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많은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다.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우리 물질적 존재의 요소들은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복잡하고 공유했던 정밀도로 작동한다. 현대 물리학 및 우주론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특히 우주와 그 법칙이 생명체를 유지하도록 놀랍도록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징후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사도 바울은 설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16-17).

오로라

때때로 태양에서 태양풍(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며 표면에 있던 높은 에너지의 플라스마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는 자연 현상)으로 알려진 태양에너지의 추가적 폭발이 있다. 이 중 하나인 코로나질량방출이 우리 지구 쪽 방향으로 방출되면, 하전된 입자들 중 일부가 자기장 선을 따라 북극과 남극 지역으로 이동한다. 자기권에 도달하면, 기체와 상호작용하여 각각 오로라 보레알리스(북극광)와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남극광)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색채의 빛 쇼를 선사한다(산소=빨간색과 녹색, 질소=파란색과 보라색).



열방의 다이제스트

멕시코, “낙태는 합법” 보수적인 멕시코의 반전 판결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톨릭 신자가 전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멕시코가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멕시코 의회는 연방 헌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고, 공중 보건 기관들은 낙태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은 낙태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다. 또 과거 낙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될 수 있다. 현재 멕시코의 32개 주 가운데 20개 주는 낙태를 불법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공립 주병원이나 진료소에선 태아의 기형이 심하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그리고 강간 등의 이유로 임신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 멕시코에서 가장 먼저 낙태를 합법화한 주는 수도인 멕시코시티(2007년)다. 중부 도시 아과스칼리엔테스는 지난달 낙태죄를 폐지해 낙태 합법화에 동참한 12번째 주가 됐다. 이미 중남미 국가 중 콜롬비아·쿠바·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이 낙태를 합법화했다.

英 성공회 성직자 53.4% “동성혼 주례 허용 찬성”

더 타임스(The Times)가 10년 만에 영국 성공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동성혼을 주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입장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천2백여 명의 현직 성공회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4%)이 동성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3분의 1 이상(36.5%)이었다. 영국 성공회 총회는 지난 2월 동성혼 축복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지지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성직자(59%)는 동성커플을 축복한다고 답한 반면, 32.3%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5명 중 3명 이상(63.3%)이 동성애자 성직자가 동성파트너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2014년 이후 영국 성공회 성직자들의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랭커스터 대학교 연구에서 응답자의 51%는 동성혼이 ‘잘못’이라고 답했으며 동성혼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였다.

이집트, “제발 애 좀 그만 낳아라”

이집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업난 등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산아 제한 정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엘시시 대통령은 “출산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라면서 “인구 과잉 문제는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인구는 2000년 7,137만 명에서 2010년 8,725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 2020년에는 인구 1억 명을 돌파했다. 이집트의 합계 출산율은 3명에 근접한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한 뒤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2021년 합계출산율은 2.9명(2021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집트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1.9%로 증가했고, 실업률도 7%대에 육박했다.

K-김밥,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

미국에서 한국 김밥 열풍이 거세다. 8월 초 미국 초대형 할인점인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를 시작한 한국 김밥은 약 2주 만에 완판됐다. 미국 전역 500여 개 매장마다 ‘사재기’ ‘오픈런’까지 이뤄졌다. 미국에서 김밥 역사를 새로 쓴 제품은 경북 구미의 한 식품업체에서 생산한 김밥이다. 업체는 포장지에 ‘Kimbab’이라고 상품명을 적고, ‘한국식 두부(유부)와 야채가 들어간 김 말이’라는 소개 문구를 넣었다. 가격은 3.99달러(약 5,400원)로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

는 일반 김밥(7~12달러)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국냉동김밥은 편리한 조리법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냉동김밥의 인기는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 음식은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교포나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만 즐기는 음식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탈종교화 가속..종교인 비율 30%대 첫 하락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만 19세 이상 성인 중 2022년도 기준 종교인은 37%, 무종교인 63%로 집계됐다. 조사 시작 시점인 1998년 53%였던 종교인 비율이 47%인 무종교인보다 앞섰다. 2017년에는 무종교인 비율이 53%로 종교인을 앞질렀다. 이후 무종교인이 점차 증가하며 종교인과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이다. 종교인 특성은 성별로는 여성 47%로 26%인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경우 절반이 종교인인 데 반해 20대에서 종교인 비율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종교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불교가 16.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15.0%, 천주교 5.1%로 그 뒤를 이었다.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22.5%에서 2022년 15.0%로 줄었다. 개신교인이 종교를 버린 이유 중 1위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란 응답률이 35%로 가장 높았다. 2위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란 응답도 29%를 차지했다.

역대 최저 기록한 2분기 출산율 0.7명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졌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인구재앙’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2분기 출생아는 5만6087명으로 1년 전보다 6.8%

(4062명) 감소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은 1000명당 출생아 수가 6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명이나 줄었다. 결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과거 공식마저 통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결혼이 풀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늘어났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핑크 ‘역대 최대’ 59조 원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 원에서 341조4천억 원으로 59조1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 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 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

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천억 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 원, 종합소득세 3조6천억 원, 관세 3조5천억 원, 상속·증여세 3조3천억 원 등으로 전망됐다. 역대급 ‘세수핑크’라지만 올해 7월까지 걷힌 근로소득세는 3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일교차 큰 가을, 건강관리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몸의 균형이 깨져 면역 능력이 저하되기 쉽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가을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기 위한 관리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환절기 건강관리 중요성

우리나라 환절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체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저항 능력이 떨어져 환절기 질환에 걸리게 된다. 또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정신과 몸이 허해지고 피로감이 쌓이거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기고, 기후에 적응하는 동안 몸 안에는 독성 물질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절기, 이런 질병 조심

■감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코와 기관지가 마르면서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자칫 방치하면 중이염, 축농증,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가을철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이 주요 증상이다. 건조한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이때 참지 못하고 긁으면 피부의 습진성 변화가 발생하고, 다시 더 심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면

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교차가 커서 면역이 저하되는 이맘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콧물, 찢거나 칼로 베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미세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코점막을 자극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물처럼 맑은 콧물, 연속적인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교차가 커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코점막이 건조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져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특히 가을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돼지풀, 쑥, 환상명귀 같은 잡초류의 꽃가루가 많이 날리므로 조심해야 한다.

■안구건조증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해지는 날씨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로 인해 가을철에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아진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 자주 시리며 이물감 같은 자극 증상을 느끼게 된다. 또한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여 눈을 잘 뜰 수가 없으며 심하면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취침 전 안구마사지를 해주면 안구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이며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교차 커지면 면역력 떨어지는 이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① 체온 유지 때문이다. 인간은 항상 동물이라 한낮

과 아침·저녁으로 급격히 바뀌는 기온에 적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 피부·근육·혈관·자율신경 등 여러 기관이 에너지를 과다 소모한다.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면역세포에 할당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②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호흡기 점막의 섬모 기능이 떨어진다. 이는 호흡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며, 바이러스·세균 등이 침투해 호흡기 감염 질환에 잘 걸린다. 또한 일교차가 증가할수록 심박수, 심장 부하 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 한국 등 4개국에서 일교차 대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일교차가 1도 증가할 때마다 총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호흡기 질환 사망률은 각각 0.58%, 0.81%, 0.9% 높아졌다.

면역력 강화식품 섭취

■바섯: 면역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혈당·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브로콜리: 비타민C와 철분, 칼슘이 풍부하며, 단백질을 생산시켜 환절기 심장질환 예방에 좋다.

■마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알리신, 셀레늄, 마그네슘이 함유되어있으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 된다.

■김치: 김치에 들어간 무, 배추, 열무 등의 식재료에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이는 체내 면역력 강화에 도움 된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참치, 꽂치 등의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 오메가3, 엽산, 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는 동맥 순환을 촉진해 노화를 늦추는 것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생강과 강황: 생강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면역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 역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



환절기 건강관리, 연령대별 면역관리

1. 유아기

갓 태어난 아기의 몸에는 아직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대신 모유 수유를 통해 엄마가 나눠주는 면역력에 의지하게 되므로 엄마는 평소보다 위생관리와 균형 있는 영양소로 음식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모는 근육과 혈액을 만드는 철분이나 칼슘의 함량이 많은 음식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하여 엄마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까지 지킨다.

2.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장이 왕성한 때이므로 뼈 성장에 필요한 칼슘의 보충이 필요하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 경우 비타민 섭취가 필요하며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증진하는 아연도 충분히 섭취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컫는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은 정서적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항산화 영양소 및 두뇌활동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여학생은 비타민C의 보충을 통해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면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

3. 청년기

건강한 신체와 함께 면역력 또한 좋은 시기이다. 젊으므로 질병에 노출되더라도 빠르게 회복되지만 이 시기에 현명하게 자기관리하지 않으면 차후 면역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지속되면 비타민B

군과 비타민C가 다량 소모되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보충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0대는 최대 골밀도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골격계에 도움을 주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를 꾸준히 섭취한다.

4. 중장년기

이 시기는 단백질 보충과 더불어 6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높으므로 비타민D와 칼슘 보충에 신경 쓴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오메가-3와 나토키나제, 코엔자임, 항산화제 등의 섭취도 필요하다. 특별히 면역관리에는 베타글루칸과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이단들, 이렇게 접근한다

현대종교는 '길거리 이단 분별법'을 그림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알면 뿌리치고 모르면 빠지는 이단분별법이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기쁜소식선교회 등의 이단이 길거리에서 포교하는 방식을 알고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01. 신천지



20~30대 청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형상당, 심리검사, 연극, 영화캐릭터 연구 등을 한다면 접근한다.

02. 하나님의 교회



30~40대 여성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느낀점을 말해 달라며 접근한다. 어머니 하나님,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한다.

03. JMS



키가 크고 늘씬한 젊은 여성에게 모델, 치어리더, 아나운서, 승무원을 할 생각이 있냐며 접근한다.

04. 여호와의 증인



변화기를 중심으로 가판대를 설치하고 소책자나 전단지를 무료로 가져가라고 한다.

05. 몰몬교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의 젊은 외국인이 접근해 무료로 영어공부를 하자며 접근한다.

06. 안식교



안식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 CHANGE(변화) 등의 소책자 및 월간지를 나눠준다.

07. 기쁜소식선교회



그라시아스합창단에서 공연하는 12월 칸타타 전단지를 나눠준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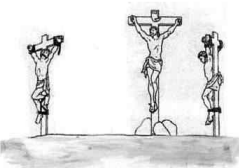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1				11		11		12
	3			8		10			
			9			10		13	
2									
				7				12	14
4		3							
		5	4			14	16		
	5				18		13	15	
6					16	17			
					15				

11.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
12.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13.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결정함
14. 원수를 갚음
15. 스승의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
16. 남의 사정이나 비밀 따위를 은밀히 알아봄

세로문제

1. 산세, 지세, 수세 따위를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해 설명하려는 이론이나 주장
2. 어떤 일의 성패를 가르거나 승부를 좌우하는 마지막 결정으로서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목이나 기관지의 점막이 자극을 받아 갑작스럽게 거친 숨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옴
4. 전선이나 통신선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5.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치우고 없애 깨끗이 함
6.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음
7.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진행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건
8. 결혼식을 주재하여 진행함
9. 실제로 체험하듯이 느낌
10. 자기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11.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거나 땅을 기름지게 하려고 흙에 주는 영양물질
12. 동물에게 갖가지 재주를 훈련 시키는 사람
13. 집을 받치는 가장 큰 들보
14.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아무런 결점이나 부족한 것이 없음
15. 강의나 강습을 받는 학생

16. 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17.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물음
18. 성숙한 남자의 코밑이나 턱 또는 뺨 언저리에 난 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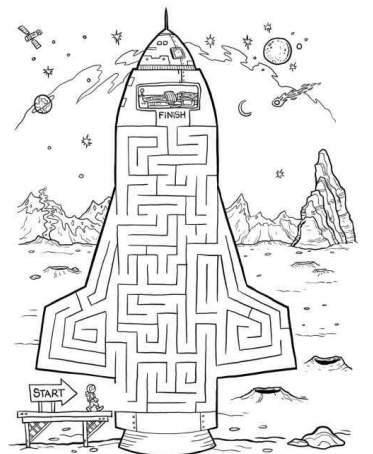
<지난 9월호 정답입니다>

폭	염		각		종	려	주	일	
포			정	육	점			기	초
수	세	미		아	채	석	장		
		풍				근			건
태	평	양		담	금	질			망
권		속	삭	임		결	핍	증	
도	전		제	염		승			
	시			흑	색	선	전		신
회	개		역		입				앙
		선	교	사		견	물	생	심

가로문제

1.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 저기압
2.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
3. 잠을 잠
4. 물이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된 것
5. 액체에 잘 용해되지 아니하여 밑바닥에 가라앉은 물질
6.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어떤 일을 빚어낸 바로 그 사람
8. 피부가 노화하여 잡힌 금
9.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어긋남
10. 생명 유지를 위해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화학 변화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태국 치앙마이 아웃리치 ■ 8월 20~26일

“열방으로 흐르는 축복의 문을 열라”



순개강축제
(말씀암송)
리더십세미나



부평목장



계양목장



새가족 - 박성수성도(삼산2목장)



순심방예배-계양목장

전도축제
발대식
심방



노인정 방문
찬양인도자
스쿨



갈산노인정



삼산7단지 노인정





삼산2목장
김도균집사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작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입시 준비로 2년 공부계획을 세우던 중, 매일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올리기 위해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옆집에 착하고, 모범생이던 누나가 떠 올라 그 누나가 다니던 교회로 일요일만 2~3시간 정도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여학생만 6명 나오던 고2 반에 남학생이 왔다는 이유로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격한 환대에 한 달간은 행복하게 다녔으나 5월 중간고사에서 10등이 떨어져 교회를 잠시 접고, 공부에 매진할 목적으로 교회 선배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 기도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몇 가지 도움 되는 이야기를 한 후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별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선배의 입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감감한 기도실에서, 난생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순간 소름이 돋았고 더불어 제가 하는 행동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저를 보고, ‘도균아, 정신 차려라, 이성을 찾아라, 미치면 안 돼!’라며 제 마음속은 끊임없이 이 상황을 빠져 나가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그런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저의 입술은 계

속 회개하며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교회를 나가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에 제 인생에 임한 신적 능력의 실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신적 능력이 교회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다 행이지만, 만약 그게 무당이 되기 위한 접신이라면 전 인생 박살 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기도에 몰입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제게 일어난 기이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간절함과 달리 속은 빨리 시원해지지 않았고, 그런 갈등을 풀기 위해 C.C.C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고, 대신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리더를 하면서 리더십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채플을 드리다가 간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20절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정의 변화도 체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에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른 문화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군에 가서는 아브라함처럼 내 본연인 곳 고향을 떠나 전혀 낯선 곳에서 홀로 서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몸으로 겪으면

서, 부르짖게 되었고 적지 않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영내에서 읽었던 영적치유라는 책에서 받은 은혜가 큼니다. 기도해도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던 우울감, 십자가에 감동 없음 등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근원부터 있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제대 후 원수 같은 아버지를 7년 모시고 살면서 내면이 단단해졌습니다. 홍콩, 영국 등으로 선교를 다니며 세계관을 넓히게 되었고 섬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인천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자리 잡느라 이 일 저 일 닦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돌도 없이 사람이 많은 분을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은 제게 일임을 하면서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이 받은 환상을 이루기 위해 목회를 하시는 것에 더 권위를 두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관계는 몇 년 후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사가게 되면서 정리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과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부족한 정서적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고, ‘교

회 가기 싫은 10가지 이유’에서는 신앙은 이성이나 감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식사를 자주 했는데, 가깝게 지내던 어떤 집사님이 “너는 가르치려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의’가 강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0세가 넘어가니 건강의 위험과 경제적 궁핍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믿고, 익숙한 대로만 움직이려는 유혹을 피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려고 날마다 던지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긴장을 풀 수 없어서 불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니 또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 매일 매일이 새롭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 붙어있으니 때가 차니 길이 열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마음속 소원들도 이루어집니다. 비록 한순간의 경험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체험과 훈련들이 저를 성화시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 출발점에 있었던 고2때의 성령 감화사건은 교만하고 끼가 많던 저를 주께 붙어있게 한 치밀한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작품이었음을 이제 발견합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주일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2023 하반기 블레싱 전도축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27

생명터치 Life Touch!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초청일과 전, 후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2일 (주일)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15분 / 3부: 오후 2시, 본당

영유치 유년초등부 이벤트데이

2023년 10월 21일 (토)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3대3)

2023년 10월 28일(토)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삼산체육공원 야외 농구장



신청기간: 9월 19일(화) ~ 선착순

* 팀 구성: 1팀 5명(후보 2명 포함)

* 참가자격: 1) 중·고등학생 및 동연령 청소년
2) 형평성을 고려하여 엘리트 선수출신
청소년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참가비: 1인당 5,000원

* 시상: 중·고등부 각각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 경기규칙: 중·고등부 각각 토너먼트 경기운영

(FIBA 3x3 경기규칙을 준용함)

* 문의: 최승진 전도사 (010-7552-7350)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